아름답고 참담한 그날의 기록

『하얼빈』 김훈

이발소 거울에 하얼빈 거리가 비쳤다.
거울 속에서 마차가 지나가고
러시아 사람, 청나라 사람들이
지나갔다. 거울 속에서
안중근과 우덕순이 마주보며 웃었다.
이발사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더운 물수건을 안중근의 얼굴에 덮었다.
안중근은 따스한 습기를 빨아들였다.
우덕순은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기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귀밑에서
이발사의 가위 소리가 사각거렸다.
이발사는 머리카락을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다듬어 올라갔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이목구비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안중근은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저것이 나로구나…
내가 살아서 이토를 쏘는구나…

—— 『하얼빈』

WRITER

안보윤 소설가
『어떤 진심』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

역사에 진심인 친구가 있다. 사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십수 년째 역사 관련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드문 경우다. 왜 드물다고 하느냐면 친구와 함께 대학을 졸업한 동기들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여행사 직원,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등 역사와 거의 관계없는 직업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나 역시 소설가가 되었다.) 친구는 종종 역사와 관련된 뉴스 링크를 내게 보내곤 했다.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거나 훼손되었다는 기사들로, 환호할 일보다는 분노할 일들이 현저히 많았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 때 일이다. 한 네티즌이 고문으로 퉁퉁 부은 유관순 열사의 얼굴 사진을 복원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나는 냉큼 친구에게 복원 사진을 보내고는 참 곱지? 라고 물었다. 참 환하고 곱다, 안타깝다, 그런 식의 답글을 기대하면서였다. 친구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 사진까지가 역사야. 친구가 말했다.

—고통받은 얼굴의 마지막 기록까지가 유관순 열사 투쟁의 기록이야.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투덜거렸다. "너네 팀원들이 너 싫어하지? 매사 그렇게 진지하게 굴면 미움받아." 친구는 어쩐지 화가 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열사가 구타당하면 멍들고 몸이 붓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다는 점이야. 독립운동가는 철인도 영웅도 아니야.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어코 버텨낸 그 신념과 의지가 아름답고 참담한 거야." 참담하다. 나는 친구의 말을 꽤 여러 번 되뇌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랬다. 독립운동가란 무릇 대나무처럼 곧고, 서릿바람처럼 차고 날카롭고, 무소처럼 거침없는 성정을 가졌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이를테면 뭐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굉장한 유전자와 정신력을 지닌 초인 정도로 말이다.

과연 그랬을까. 김훈 작가의 『하얼빈』을 읽는 내내 나는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정갈한 문장들로 써 내려간 안중근 의사의 서사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애틋한지 모를 일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하얼빈을 향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정치적 목적을, 안중근과 우덕순은 항거의 목적을, 안중근의 아내와 두 아이는 재회의 목적을 품은 채다. 이토와 안중근의 서사가 교차 편집되며 역사 속 그날로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가는 과정은 비장할 정도로 차분하다.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과 우덕순의 행적이 특히 그렇다. 두 사람은 번화가에서 양구이로 점심을 먹은 뒤 옷을 사러 간다. "쏘러 갈 때" 입을, 추레하지 않을 옷이다. (안중근 의사 표준영정으로 쓰이는 사진 속 흰 셔츠와 더블 버튼의 반코트가 아마도 이때 산 옷일 것이다.) 이들은 이발소로 향하며 말한다. "머리를 깎자. 잡힐 때 깔끔한 게 좋겠다. 새 옷도 입고." 이발을 한 뒤엔 다시금 사진관으로 가서 영영 찾지 못할 사진을 찍는다. 이들의 행적은 안주머니에 총을 챙긴 채 빈손으로, 작은 손가방 하나로 하얼빈을 향할 때만큼이나 담담하고 의연하다. 그러나 거사 전날 밤, 안중근은 권총을 점검하며 떠올린다. "총을 쥔 자가 살아 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안중근 역시 인간이므로 총구가 흔들리고 방아쇠를 거머쥔 손가락이 머뭇거릴 것이었다. 안중근은 "이토를 죽여야 한다는 절망감과 복받침"을 억누르고 고요한 평정을 유지해야만, 그리하여 오롯이 이토의 몸에 총알을 박아넣어야만 했다. 이토와 맞닥뜨린 때 역시 안중근은 혼란 속에 있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저 작고 꾀죄죄한 늙은이가…" 민족을 짓밟은 대상이 그토록 볼품없는 것에, "…나는 이토를 본 적이 없다… 저것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 자신이 방금 총을 쏜 대상이 혹시 이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짧은 순간 맹렬히 번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어코 이겨낸 채 단단해진다.

이것까지가 전부 다 역사로구나. 책을 전부 읽은 지금에야 나는 친구의 말을 이해한다. 빛나는 문장으로 각인된 저격의 순간만이 역사가 아니다. 안중근의 고뇌와 혼란, 망설임과 떨림이 모두 기록되어야만 그가 해낸 일의 무게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인간 안중근에서부터여야 하는 게 맞다. 흔들리는 총구를 손에 쥔 그가 어떤 각오로 그토록 아름답고 참담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